

시·군·구 통합 급물살

국회특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인구·경제 고려 전국 60~70개로 통합

인구·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을 거론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그 처방의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하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군·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개 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90년대 이후 목포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곧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10년 계획으로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도의 기능·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했다.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이양, 행정·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허태열 의원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교통·통신의 발전과 활발한 이동 등으로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며 "현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등 해, 지역·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양의 계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곡성군 옥곡면 오지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바라기 꽃밭에서 활짝 웃고 있다. 곡성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4.4도까지 치솟았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때이른 폭염 순천 35.4도

광주·전남지역에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29일까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화순지역 낮 최고기온이 34.7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구례 34.4도 ▲곡성 34도 ▲순천 33.4도 ▲광주 32.9도 ▲광양 32.6도를 기록했다. 정식 기상 관측이 아닌 자동관측소에서 이날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순천시 황전면이 35.4도를 나타냈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화순군과 광양시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에 내린 폭염주의보는 이날도 유지됐다. 을 들 어 처음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보다 2주가량 앞선 것으로 이는 2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불볕더위는 장맛비가 내리는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한 낮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 일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롤러코스터' F1

불참 선언했던 페라리 등 참가 결정 영암대회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시급

2010 포뮬러원(F1)대회 불참을 선언했던 F1대회 유명 경주팀 단체 '포타'(FOTA·Formula One Team's Association)가 F1대회 참가를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애초 우려와는 달리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페라리와 맥라렌, 르노 등이 10개 팀 외에 신규 3팀을 포함한 13개 팀이 참가 엔트리에 명단을 올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 경주연맹(FIA)과 FOTA는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모터스포츠총회(WMSC)에서 FOTA 소속팀의 F1대회 참여에 합의했다.

FIA는 총회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현재 F1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팀들은 내년 F1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대체 시리즈나 챔피언십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F1팀들은 오는 2012년까지 FIA와의 상업적 계약을 따르기로 했으며, 201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협상에 따라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FIA는 이어 "각 팀들은 2년 내에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예산을 줄이고, 기존 F1 제작팀들은 내년 대회에 신규로 참가하는 3개 팀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협상을 통해 FIA와 FOTA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예산상한제'는 당분간 보류되면서 애초 우려와 달리 내년 F1대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전남도는 FIA와 FOTA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F1대회 참가팀 최종 엔트리로 지난달 FIA에 참가신청을 한 13개 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FOTA나 FIA 모두 공멸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막판 협상으로 충분히 타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F1의 유명 팀과 신생팀들이 내년 코리아 그랑프리에도 모두 참석하기로 해 역대 최대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해당 패키지
부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전기·가스료 단계적 인상

주택·농사용 전기료는 동결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원가를 밀도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주택용·농사용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한다. 〈관련기사 8면〉

또 11월까지 3차에 걸쳐 중소기업 4단계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

융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점차 환원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은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조정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폭도 최소화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후행 연동제를 2011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조건 변경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협의가 이뤄진다.

또 세입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등에 대해 세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스

LIRIKOS